



Korean American Club
 24338 El Toro Rd. Suite E(PMB) 406
 Laguna Woods Village, CA 92637
 WWW.lagunawoodskac.com

발행인 김병희
 편집인 송윤근

한인회보 54 회

L.W.V. 한인회 회원 여러분



라구나 우즈 한인회가 발족
 한지 10 여년이 된 지금,
 발전하는 한인회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제 6대 한인회장
 취임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 섬김과
 화합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겠노라 ” 말씀드린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한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스타웨이 데이빈 김을 주축으로 하여 한인회
 행사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후원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후원회로 발족시킨 일은
 앞으로 이곳 한인들의 삶의 영역을 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회의 설립목적, 동기,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의 등록이 미연방 정부로
 부터 허가 받음은 미래를 위하여 비약된 단체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한 살림을 맡고 있는
 Third Mutual Board of Director 로 당선되신 장원호
 박사를 통하여 우리 한인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서
 PCM 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우리의
 IDEA 가 적용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회보를 대폭 Upgrade 하여 많은 안내,
 소식,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는 회원들 간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손길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삶을 누리는 우리의 정착지, 이곳
 생활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충만하다면 우리는
 라구나 우즈는 참으로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그동안
 있었던 모든 성공적으로 끝난 행사는 LEADER 로서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
□

부족한 점이 많은 저만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초를
 놓아주신 전 회장님들과 현재의 한인회 임원과
 이사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한 섬김과
 화합, 봉사였으며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끝으로 2011 년도의 3 번째 한인회보를 발행하면서
 지면을 통하여 라구나 우즈에 사시는 모든 한인분들
 (회원,비회원)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인회장 김병희

장원호 박사, Third Mutual Board

선거최다 득표 당선

장원호 박사가 지난 10 월 5 일 의 Third Mutual
 Board Member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장박사는 Third Mutual 주민 6 천명중 2,710 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499 표를 얻어 4 명의 Board



Member 당선자 중 가장
 많은 득표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지난해의
 중국계 당선자 Rae Tso 와
 더불어 급속도로 늘고있는
 동양계 resident 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장박사는 또한 2005-2006 년도에
 한인회장으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 월 25 일 장박사의 당선을 축하하는
 모임이 Club House #2 에서 열려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축하 분위기를 고양했다.

인사 말씀

장원호

이번 보드 멤버선거에서 제가 최 다수로 당선하게

된 것은 김병희 한인회장과 선대 공동위원장 장기화 박사와 최현동씨의 적극적인 도움, 그리고 한인회원 여러분이 투표해 주신 공로로 알고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출마하고는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이 되고 스테이트로 함께 운동한 그룹이 6 대 5 로 절대 다수를 이룩하고 보니, 지금까지 수 년동안 보드의 전권을 쥐고 작년의 PCM 에 대한 소송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킨 보드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지금의 계약회사를 바꾸는 것 보다는 함께 노력하여 개선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주민들이 선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드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니, 회장에서 부터 모든 중요 위원회의 운영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선된 저임에도 불구하고 보드의 제이 부회장과 가장 중요한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Committee (M&C)의 부위원장(Vice Chair)의 중책을 맡겼을 뿐 아니라, 각 Mutual 에서 두 명씩 추천되어 구성되는 GRF 에도 Security and Access, Community Activities 와 Broadband Committees 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우리 보드와 GRF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새로운 사항과 문제점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빌리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매월 내는 분담금을 올리지 않고 더 좋은 환경과 각종 프로그램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건물은 삼,사십년이 되어 기둥이 썩는 등, 많은 수리비와 유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건축자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서 분담금을 올리지 않기 위하여 Landscape 비용 중에서 약 오십만 달러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의 직원 12 명을 감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원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예비비에서 일부를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료도 우리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사용료가 대폭 인상 되면서 현재의 예산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사십년 전에는 물값이 대단치 않아서 각 가정에 미터도 달지 않았지만 이제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 GRF 회의에서 전기사용 점검시스템이 1994 년도에 보완되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나, 비용이 약 2 백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또한 Village 에 설치되어 있는 총 13 개의 게이트에 보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Village Green 도 곧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하였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도 많습니다. 저는 본래 사회조사 연구소장을 지내면서 지역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조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중에도 우리 주민의 선호와 태도를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PCM 과 보드의 기능에 관하여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우리의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고 설득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겪어온 PCM 과의 어려운 문제들도 제가 앞장서서 도와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계속된 성원과 격려를 부탁하오며 더불어 잘 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질책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 파티 10 월 25 일 Club House #2 에서

Dr. 장기화, Joseph Choi 께서 Sponsor 축하 파티가 회원여러분을 초청하여 Dinner Music, Karaoke, Dance Music 등으로 성대히 거행 되었으며 230 명 회원으로 대만원을 이루었습니다.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2012 년도에 한인회를 위해 회장으로 헌신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 라구나 우즈 한인회를 사랑하고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겠다는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은 조순승 이사장님께 늦어도 11 월 25 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 순승 이사장님 연락처 : 949-586-6518

회원동정 기사입니다

부음소식

정하룡님의 부인이신 정순자님과
엔젤라 상님의 남편되시는 상세균님,
조정자님의 남편되시는 조영만님,

이숙님의 남편되시는 이수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주소록 편찬

금번 한인회에서는 8절지 크기의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구정 파티때를
기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새로 이사 오신분들과 예전의 주소록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가 바뀐분을 위해 새 주소록을
편찬합니다.

특히 12월 7일 한인회 총회시에 사진(개인, 부부)을
찍을 예정이오니 누락되신분이나 정정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주소록 편집담당 ☎ 노재문 ☎ 949-768-5657

한국 소식

대한민국 총선 재외투표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3월 28일부터 6일간 총선
재외투표를 실시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추어 시행되는 첫번째 외국 국민선거가 오는 11월
13일,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6개월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외에 국적 확인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한다.

지상사,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의 경우는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
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며
재외투표일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총영사관에서 실시한다.

신청서는 한인회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복수 국적 취득안내

L.A 총영사관으로 부터 받은 이중 국적 취득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외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수수료는 5만원이며, 안내문의는 한국 내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스 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문의 담당은 배상업 영사
(212-385-9300), 내선 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Club 안내

여성회: 회장 양현숙

일시: 7월 9일 3번째 목요일 12:00-2:30

장소: CH #7

Line Dance 방: Brian Kim 지도

수요일: 1:00-1:45(초급반) 12:00-1:00 중급반

장소: CH #1 (연락처 Brian & Soo Kim)

목우회 Line Dance 방: Brian Kim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6:00-9:30PM

장소: CH #2

연락처: 최순옥 949-228-6107

요가 방: MS. 신 지도

일시: 화요일 4:00-6:00PM

장소: PCM Rose Room

금요일 8:00-10AM 장소: CH #7

합창 방: 이덕희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10:30-12:00PM

장소: CH #7 또는 CH #3

연락처: 박정미 949-951-3978

이덕희 949-770-1388

찬양의 쉼터: 이덕희 지도

일시: 매주 월요일 7:00-9:00PM
장소: CH #3 DR 1
연락처: 염춘자 949-951-6980
김경옥 949-855-0775

Auto 하프 반: 장 화영 지도

일시: 매주 목요일 2:00-4:00PM
장소: CH #2 또는 CH #1
연락처: 장 화영 949-354-0765,
정공자 949-859-6878

사물놀이 반: 채 정혜 인도

일시: 매주 월요일 12:00-2:00PM
장소: 가든 그로브
연락처: 채정혜 949-206-0567

미술 반: 정희자 지도

일시: 매주 월요일 9:00-10:30 분
장소: CH #1 Dining Room 2
연락처: 정희자 949-4609640

기우회: 마작 및 바둑 교실

연락처: 황 정식 949-768-5336

타이치 반

일시: 수 & 금요일 7:30-8:30AM
목요일 8:30-10:00AM(타이치 댄스)
토요일: 10:15-11:00(타이치 댄스)
토요일: 9:00-10:00AM(치공)
장소: CH#1

탁구 반: 채 한경 지도

일시: 화요일 6:30-9:00PM
장소: PCM 탁구실
연락처: 채한경 949-636-8989

Nonprofit Organization 등록

Laguna Woods 한인회가 연방정부 세무국 IRS 허가된

Nonprofit Organization 으로 등록 됨으로 여러분의
기부는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Income Tax 보고서
세금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D: E N I: 45-2730521

연말 파티로의 초대

어느새 2011 년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몇번인가
눈을 깜빡거린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은 벌써
우리에게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장박사님의 선거, 여름 야유회 등, 중요한 일들을
치루면서 우리 한인회원들의 열심과 성의를 다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뜻을 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하는 한해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한인회에서는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과 안건 등을 인준하는
총회로 한인회원 모든분들을 송년파티에 초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오락과 함께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여
라구나 우즈 모든 식구들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11 년 12 월 7 일 오후 4:30 - 9:30

장 소 : Club House # 5 Main Room

참가비 : 회원 \$25.00, 비회원 \$30.00

복 장 : 파티복

연락처 :

노재문 949-768-5657

이영옥 949-454-2455

COMMUNITY NEWS

Social Security Benefit

인상사회 보장 혜택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오는
1월 1일 부터 3.6% 인상된다. 이는 지난 2년동안 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동결됐던 것으로 2009년 5.9%
인상 이 후, 3년만에 행해지는 인상이다. 현재 약 5천
5백만명이 SS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수혜자들은
이 혜택으로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약 8백만명의 저 소득층은 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인상은 12

월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3.6% SSB 인상은 예상되는 Medicare B Premium 인상으로 인해 대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인상은 수혜자의 경우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3.9%임을 감안하면 SSB 수혜자의 실질 수혜액은 도리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United Mutual Board, 금연

(Smoke free) 건물 지정 절차 인준

9월 30일 United Mutual Board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의 주거 빌딩을 금연 빌딩으로 규정하는 권한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규율을 마련했다. 이는 간접적 흡연(Second-Hand Smoking)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흡연사고 및 화재, 건물의 파손 등을 고려해서 채택된 것이다. 만약 특정 빌딩이 흡연빌딩으로 지정되면 모든 주민들과 동거인은 물론 방문객들도 금연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 United는 Bylaw에 따라 위반자를 Board 청문회에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한 훈계조치를 취하게 된다.

United 와 Third Mutuals , Water Heater

Electrical System Upgrade 의결

United 와 Third Mutual Board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Water Heater의 전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의결했다. United Mutual의 주택들은 모두 2년 이내에 전기장치를 개선받게 되며 Third Mutual의 경우 Gate 5와 6에 위치한 주택들만 앞으로 수년에 걸쳐 점차로 이 개선을 받게된다. 해당 주택들은 우편 통지를 받게 되며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면 949-268-2581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GRF 와 Mutual 새해 예산통과

GRF, United, Third Mutual 과, 와 Mutual Fifty 등은 여름동안 장시간에 걸쳐 심의에 심의를 거듭했던 2012년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 United 와 Third Mutual은 fee 인상을 극소화하는 추세를 계속해 새해에도 assessment 변경을 자제했으나 GRF는 4%

assessment 인상을 결정했다. 2012년 기본 Monthly Assessment는 United가 \$527.46, Third Mutual이 \$552.70, Mutual Fifty가 \$1,580.01이다. 이 fee에는 GRF fee \$207.75이 포함 되어있다.

한인 인구 증가 추세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한인가정 증가 추세가 년 25%를 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에 한인가정이 57가정입니다.

Welcome New Members!

새회원 명단(지난 회보이후)

순서 없음

No	성명	전화번호
1	김윤성/이인화	949-243-7736
2	이흥룡/경숙	310-986-7383c
3	이기복/정석영	949-540-9769
4	주용/주정숙	213-271-3470 C
5	Michael Choi/해순	949-354-0966 C
6	이일웅/심한기	845-774-6842 C
7	신도철/강혜림	949-427-3238C
8	이규조/정숙	949-382-1824
9	이숙	949-454-8568
10	황정훈/김미자	949-340-4326
11	전기배/호자	408-905-2639
13	조성환/서경선	949-468-5965
14	이래현	714-474-6653C
15	권봉택/수용	949-243-7692
16	김재창/애경	949-859-1393
17	김가조/숙자	248-420-7269C

야유회를 마치면서 □



2011년 8월 15일(월요일) 드디어 계획하고 준비한 야유회가 Dana Point Park 에서 이백삼십여명의 우리 한인들의 참석으로 화기에애한 가운데 하루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경건한 66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마치고 등록인원은 160여명이었으나 실제로 공원에 참석한 식구는 227명이었다. 여성회원들은 음식이 모자라지나 않을까 걱정들을 하면서 Serve 를 하게 되었지만 넉넉히 200명분을 준비했으니 풍족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너그러움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또한 후원회에서 갈비를 350명분을 준비했고 Starway 의 후원회장님께서 고기를 구울 두 사람을 고용하여 정말 편안하고 풍족한 갈비파티를 베풀어 주셨다.

또한 Cabinet 전문업을 하시는 김기덕 사장님은 음료와 수박을 제공하셨고 Common Wealth 은행의 김 양선 지점장께서는 저금통을 나누어 주셨다. 무엇보다 우리의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또한 2011년 여름야유회를 위해 회장단과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회의 큰 도움, 그 외에도 마음과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rvine Global Village Festival



지난 10월 1일과 2일(토, 일요일)에 Barranca Rd.와 Harvard Ave. 근처에 위치한 Bill Barber Park 에서 제 10회 Irvine Global Village Festival 이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Orange County 에 속해 있는 Irvine 시에서 주최하는 연중행사로 무대에서는 국가별로 프로그램을 정하여 생음악과 무용과 특기 등을 선보였으며 음식을 파는 Boots 에서는 각 나라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맛과 멋을 겨루었다. 가족들이 함께 게임이나 풍습 등을 즐길 수도 있었으며 개인적인 Business 도 선전할 수 있는 Boots 를 준비되었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함께 즐기며 배우고 친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다 민족 잔치로 손색이 없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기아 자동차회사에서 거금을 들여 무대를 설치하였고 행사를 위해 후원을 하였기에 참가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랑스럽고 흐뭇했다.

더우기 첫날에는 침례교회의 은빛 합창단과 라구나 우즈의 합창단이 마음을 합하여 염신자씨의 지휘로 신아리랑 외 두곡을 합창했으며 Korean Evergreen Dance Group 에서는 3곡의 Country Line Dance 를 흥겹게 추어 관중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고 박수갈채도 받았다.

한인회 후원 □

2011년도 무료 Flu 예방접종 행사
LWW 한인회 후원으로 무료 Flu 예방접종이 지난 10월 13일 Club House 3 에서 Joseph Jun Medical Group 으로 부터 LWW 무료로 한인들에게 제공되었다. 항상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후원회와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신
메디칼 그룹에게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2011 년 하반기 골프 대회



2011 년 하반기 골프대회가 개최 상쾌한 날씨로
가을의 멋을 풍기게 해주는 10 월 23 일에 60 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명인선회장님의 세심한 준비와 헌신적인 봉사로
골프를 통한 회원들의 단합과 육신의 단련으로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회원들의 식단은 음식의
대가이신 명 회장님의 특별하신 식탁으로 준비되어
회원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우승자	남 자	여 자
Champions	김학규	어영열
Medalist	채한경	박문순
Net 1 등	김재규	윤 Cathy
2 등	박우영	윤해영
3 등		장영숙

이번 대회를 위해 후원금 및 여러 방법으로 후원하고
도와 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Starway \$200, O'Connor Mortuary \$500,
김병희 \$100, 이일웅 \$100 박영수 \$100,
유태영 \$100, 문광치 홍영진 백용준 윤용섭
명인선: Putter
총수입은 저녁식사만 하시분 \$50, 이월금 \$190.69
와 참가비 \$1822.00 를 포함하여 \$3112.69 였으며
지출사항으로는 Green Fee \$480.00, 음식비
\$824.44, cash Award \$210.00, 상품 및
소모품비 \$740.77 이 지불되었고 잔액 \$907.48 이

이월금으로 남게 되었다.

한인회를 위한 후원금

특별히 한인회를 위한 발전 후원금을 보내신
아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Nancy 권	\$1000.00 (주소록제작용)
김영은	\$500.00 (한인회 용)
현창수	\$200.00 (주소록제작용)
최선진	\$100.00 (주소록제작용)

홀인 원 Hole in One 소식

박영수 KAC 회원



지난 2011 년 9 월 12 일 월요일 Course #2
No. 6 holes par 3 에서 김병희, 이건평,
노성채, Raymond Lee 보는 앞에서 Callaway 6
Iron 으로 hole in one 을 하였습니다. What a
once in a life time "Hole in One" [Congratu-
lation! Keep it going. 축하 합니다.

12 세 한국인 Joseph Choi 소녀 멧돼지 사냥



한인회원 최요셉씨의 손녀 Megan Choi 가 아버지와 같이 사냥가서 125 Lb.의 멧돼지를 잡아서 화제가 되었다. 사진과 잡는 과정을 기자와 같이 당시 상황을 많은 주류 사회인이 보는 Turner's Outdoorsman Internet 에 영문 기사로 보도되었다.☐

고유가 시대 경제적 자동차 운전법

▶ 스톱&고(Stop-go) 생활 운전

대부분 사람들은 엔진 시동을 걸 때 연료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장시간 자동차를 세워두어 엔진이 차가워졌을 때 문제다. 일단 한번 시동을 걸어 데워지면 다음 시동부터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공회전 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 3분 공회전에 시속 50km의 속도로 1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하다. 20초 이상 서 있을 때는 꼭 시동을 끄도록 한다.

▶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라! 재강조!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몇 배의 힘이 든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확하게 유지하면 노면과의 구름저항을 줄일 수 있다. 적정 공기압에서 0.2 바가 모자라면 1%의 연료를 추가로 낭비한다. 최대 적재 상태를 가정해 최적의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관성을 이용하라

자전거를 타다가 평평한 길이나 내리막길을 만나면 굳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를 들어 붉은 신호등을 봤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뺀다. 내리막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어는 그대로 둔 채 자동차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 완만한 경사에서 좀 더 빨리 주행하고 싶으면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것도 좋다.

▶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라

프로 자전거 선수들은 불필요한 브레이킹과 가속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훈련받는다. 운전 중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을 밟는 횟수를 줄인다. 결국, 이러한 운전습관이 연비절약으로 이어진다.

▶ 트렁크를 가볍게 하라

무거운 짐을 매고 자전거를 타면 더욱 힘들다. 운전 역시 자동차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연료 소모가 준다. 무게는 연비의 최대의 적이다. 100kg의 무게가 더해질 때마다 100km 주행 때 0.3L의 연료가 더 필요하다.

▶ 부드럽게 정속 주행 하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연료소모의 증가 속도는 빠르다. 정속 주행은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주행보다 큰 연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와 가속과 감속을 반복한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 경우에 연료와 타이어, 브레이크 그리고 다른 부품의 소모가 적고, 가속과 감속을 반복한 운전자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 브레이크(Brake) 를 필요 없게 많이 쓰지 말라

휘발유를 불필요하게 소모 하시게 되며 브레이크 패드(Brake Pad)도 저 자주 갈아 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비가 없어 집니다. 1시간 주행 시 10분간의 불필요한 운행이 14%의 연료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경로를 계획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확실히 아는 길이 아니라면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 습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연비 개선과 환경보호의 효과가 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친환경 운전습관을 들이면 안전과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해 운전하라

우리들의 글

내일은

분명

오늘을 살아갈 만한 이유다

아무도

아아가지 못한 내일

때로는

찬란하던 내일이

빛바랜 오늘로 둔갑했던 세월

그러나

내일은

끝없는 광맥

오늘을 접는 어둠속

유달리 눈부신 인연들

기억은 없으나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어

이토록 아름다운 오늘

김소향의 시중에서

☐

렉스의 죽음

김 선하

내가 사랑한 Golden Retriever 견의 기억

윈터 스톰 (Winter Storm)이 기승을 부리는 새카만 밤에 너는 가버리구나. 우리의 해 묵은 우정과 사랑이 어이 이처럼 끝이 날 수 있단 말이나. 바보 같이 쓸 손 하나 없이 숨 거두어 가는 널 지켜보며 발 구르고 울부짖었다. 이 밤이 새고 밝은 새 아침이 온다 해도 너 없는 슬한 나날을 어찌 맞아 드려야 한단 말이나.

안간힘을 다해 일어 나, 한 바퀴 걸어 보이고, 썩물처럼 자지러지며, 내 손등을 핏으려다 미처 못 이루고 새파란 눈빛으로 물끄러미 고별하곤 눈감은 너! 부동켜 안은 내 품안에서, 파득파득 고동치다 튼 꺼져 버리는 네 심장 소리

□ □Don't die on me! Don't do this to me!"

흔들고 일깨우려 해도 이미 들도 보도 못 하는 너, 단 한번도 날 거역 않던 네 살아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 거부 □분하고, 아깝고, 미칠 듯 서러워도, 죽음의 그 가증스런 오만 앞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오! 가엾은 렉스!

십일 년, 어이없이 가 버린 이민의 성상 □십일 년, 너의 허무한 목숨이 이를 되새기구나. 세상이 역경고 두려워 지는 날, 하루 해가 온통 아프고 괴롭기만 하던 날, 년 아랑곳 없이, 변함 없이, 온 몸으로 날 반겨 맞아 주었지. 스프링 보-드에 나란히 앉아 나누던 우리의 대화, 아이들 집에 돌아오면, 너와 나 두루 흥분해 날뛰던 일, 물이 좋아서 함께 수영하면 끝도한도 없이 조르던 너, 공원에서선 마음 내키지 않아도 내가 조르면 10m 높은 미끄럼대에 사람처럼 올라 미끄럼 타 보이던 너! 참을 성 많고 온통 사랑과 호의뿐이던 너!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대화꺼리가 또 생기면 렉스야, 난 누구하고 얘기하지? 누구하고 그 서러움을 풀지?" 너의 금빛 찬란한 털을 어루만수 없고 셋별처럼 빛나던 네 눈동자를 다신 드려다 볼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슬픔일랑 오늘부터 지레 참고 견디어 가는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

I'll mourn you, Rex, I'll miss you so!

넌 죽었다 해도 내 맘속에 살아 있다. 내 살아 있는 동안 □

안 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리라. 나머지 어느 날 죽는다 해도 너와 나의 사랑을 지켜 본 사람들 맘속에 우린 죽지 않고 살아 있으리라.

네 잠자는 곳 훑고 외롭거든 내게로 오라. 때 가리지 않고 소리 없이 다가와 내 엉덩이를 툅 치곤하던 그 날처럼 내게로 와 날 일깨워 다오. 네 기척 이내 깨우쳐 너와 함께 하마 □바보스런 모든 것 동행이치고 ...

□So, retrace your steps back to me, Oh Rex

And place your spot of solace in my heart To live out the lives of ours yet together!

자랑스러운 이웃 이야기 김소향(명순)



세상에는 업적이나 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존경 받고 귀감이 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봉사자를 대할 때마다 그 고결한 마음이 우러러 보였고 부러웠으며 은퇴하면 나도 봉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할머니 두 분이 들려 준 봉사 활동의 이야기가 무척 감동스러워 함께 나누고 싶다. 이웃끼리의 친선 모임에서 만난 멋쟁이 쌍둥이 자매님(Jane Muslin, Jean Sweet)은 한 달 후면 84세가 되며 지금도 직장에 나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여 여러 번 놀랐다. 서슴없이 사생활을 털어 놓는 두 분에게서 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한편 겨우(?) 예순 다섯에 일손을 놓고 은퇴 마을로 온 내 자신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의구심마저 들었다.

자매님은 30여 분을 운전하여 Costa Mesa에 있는 □Share Our Selves> 라는 곳에서 봉사한다. Orange County의 주민을 □돕는 단체로 공공 기관의 보조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무료 진료, 식량 공급, 단기 숙박 시설 제공 뿐 아니라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 의뢰나 추천을 해준다. 봉사 센터 안에는 의료진의 봉사로 운영되는 상설 진료실(내과, 치과)이 있으며 때로는 Hoag 병원으로 보내기도 한다. 성탄 즈음에는 빈곤한 가족들과 결연을 맺어 경제적(현금, 선물) 도움을 주는 "Adopt a Family Holiday Program"에 참여하여 흐뭇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귀띔해 준다.

21년째 다니고 있다는 Jane은 월, 목요일에 나가 찾아온 이들을 면접 하여 적절한 곳에 의뢰하거나 추천하는 사무직을 맡고 Jean은 월요일에 나가 200여명에게 식량 꾸러미를 나누어 주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며 또한 차 안이나 길거리에서 잘 수 밖에 없는지 아느냐며 요즈음 기부금이 부족 줄었다고 걱정한다. 은퇴 마을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는 행운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자매는 십년을 함께 살고 있다.

Jane은 아들 둘, 딸 하나, 손주 다섯, 증손주가 하나 있으며 한국인 며느리의 자랑에 여념이 없고 올해 증손을 보게 된다는 Jean은 두 딸과 손주가 넷인데 지금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있다. 이웃을 도우며 살던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 부터 봉사 활동에 익숙해 졌다는 자매는 매일에 감사하며 죽는 날까지 봉사할 계획이라 한다. 며칠 전 다녀 온 알래스카 여행의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서 마지막으로 여가를 즐긴다는 자매님이 오래 오래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40 일 대각성 기도회

36 일째 날 에 ...

이명화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나는 25년을 현미경을 보면서 암세포, 종양, 백혈병, AIDS 환자의 골수나 혈액의 세포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세포들을 보고

있던 순간 저녁 6시 10분에 전화가 걸려왔다. 계속 미루던 정기검진 차원의 Mammogram 재검, 바로 연속해서 진행되었던 Biopsy(생검)... Family 의사한테 온 전화였다. "Breast Cancer"라고 ...

하늘에 별처럼 수많은 세포를 보면서 우주를 보는 것처럼 정말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암세포나 일단 백혈병이나 혈액암 세포들은 변형되고, 크고, 밍고... 내가 너무 암세포들을 미워했는지 나도 모르는 새에 그애들이 내몸에 살고 있었다. 기운이 빠지고 눈물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겨우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이웃의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17일째 대각성 기도회에 왔었다. 암이란 진단을 받은지 2시간 만에 거의 남의 애기처럼 들리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고 돌아온지 한 달도 못 되었다. 남편은 아직도 한국에 있기에 나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았다.

예배 후에 두 권사님께서 나를 데리고 강단앞에 무릎 꿇고 담임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다. 손 목사님께서 내게 안수를 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받으라고 <이사야 41:10>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딜수 있었다. 나를 보시는 분들마다 무슨 암 환자가 그렇게 밝으냐고, 씩씩하냐고... 나를 굳세게 해주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잡고 있기에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바로 그날 손목사님을 통해 9월 12일 수술을 앞두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세포와 함께 내안의 모든 죄성의 뿌리까지 다 잘라내 달라고, 그리고 다시 몸이 회복되더라도 죄의 욕구가 왕노릇 못하도록 마취가 깰때에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달라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빚진자로 늘 살았는데 암을 통해서라도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사명을 달라고 기도 했다. 회개의 영을 주신 것도, 암을 주신 것도 다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 분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 뿐이에요.

네가 그리워서 김귀양

싸아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까악 갈매기 울음소리가 스러진다
부서지는 하얀 파도 위로
해 맑은 너의 미소가 곱친다
파도와 함께 사라지느라 싫더니
다시 밀려오는 흰 거품은
너의 모습을 또 실어온다

어느새 너는 내 가슴에
땀 뚫린 구멍을 내고
명랑하게 웃던 목소리는
허공에서 나를 감싼다.
세상에 네가 있을 때는
늘 내 옆에 존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고파도 볼 수가 없구나

천국에 있는 네가
가슴 저리게 그렇다.
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아프게 도룬다
언제라도 부르면 내 앞에 나타나
“ 언니” 부를 것 같은...
착각 속에 내 몸을 편다

혼자 천국가면 외로우니
땅에라도 나란히 누워 있자며
무덤도 나란히 산 우리였지
먼저 간 너는 예수님 품에 평안하면만
세상에 남은 나는 날이 갈수록 포령한
너를 가슴에 담아 다독인다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 너무 슬퍼하지 마, 언니”

다정한 너의 음성이 가슴을 파고든다
사랑하는 동생아!
세상에서 천사를 닮았던 너는
하늘나라 천사가 되어 살겠지...
오늘도 이 언니는 네가 보고파
동그란 너의 얼굴을 모래 위에 그린다

<사랑하는 동생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요리

흑마늘 만들기

까지얇은 통마늘을 깨끗이 하여 밥통에 넣고 8-10 일 동안 보온으로 숙성을 시킨다.

단 처음부터 보온으로만 놓고, 절대로 열지 말아야 한다. 까맣게 숙성된 마늘을 꺼내어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에서 약 2 주(14 일)동안 말린다. 그대로 밖에 놓아두고 먹을 때에 까 먹는다.

만드는 동안 마늘 냄새가 나므로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

복용 방법: 어린이는 하루에 3-4 알 정도

어른은 5 알 정도를 매일 먹는다.

효과 고혈압 예방, 피로 회복, 당뇨 치료, 노화 방지, 정력 강화 신경 안정 및 진정 효과, 소화 촉진과 위장 기능 강화

장 운동의 활성화, 간 기능 회복신경통 완화

해독, 살균과 항균 작용, 면역력 강화,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많다고 한다.

참쌀떡 이영옥

재료:

모찌꼬 pkg (16 Oz)

설탕 cup

소금 tsp.

물 2 1/4 cup

팔페이스트 /2 can(9 Oz)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백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 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한 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 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Los Angeles 는 사실상 폐지 하였고 체불벌금은 계속 징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타 지역도 추세는 점차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계속 조심을 요합니다. Laguna Woods 는 아직 별다른 추세가 없으니 계속 조심을 요합니다.

60 세가 넘으면 신체의 조건 반사가 약 20% 둔화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조심을 더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앞차와의 거리간격을 속력 10 마일 마다 자동차 한대 간격을 꼭 유지 할것을 추천합니다.

등산 김 귀양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Laguna Woods 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난한 하이킹 코스로 4000 에이커의 넓이를 가진 Aliso & Wood Canyon Wilderness Park 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Aliso 는 스페인어로 시카모어를 뜻한다. 스페인인들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본국에서 본 똑같은 시카모어 나무들이 많은 것을 보고 "Aliso"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Moulton PKWY 에서 South 로 가다가 Alicia PKWY 에서 바다쪽으로 가면 Aliso Creek 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Awma 라는 길이 나온다. 좁은 다리 위로 Aliso & Wood Canyon Wilderness Park 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길도 좁고 차량도 드물어 지나치기 쉬우니 잘 살펴 봐야한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 울타리 안에 파킹을 하면 3불의 파킹 ticket 을 사야하고 오른쪽 길 옆으로 차를 세우면 파킹 ticket 을 사지 않아도 된다. Ranger Office 를 지나 Aliso Creek Trail 인 아스팔트 길로 2.5 마일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오른쪽으로 Wood Canyon 트레일이 나온다.

트레일 입구에 Portable 화장실이 2 개가 있어 편리하다. Wood Canyon Trail 로 조금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Cave Rock 의 신기한 바위를 둘러보고 다시 Wood Canyon Trail 로 나와 계속 왼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Dripping Cave 입구가 있다. 이 동굴은 한쪽이 막힌 반쪽짜리 동굴로 오래전에는 인디언들의 거주지였고 한때는 LA 와 San Diego 를 잇는 열차를 승격하는 “ 후안 플로레스 ” 강단의 은신처였다고 한다. 지금은 물이 없어 아쉽지만 옛날에는 바로 앞에 깨끗한 개울이 있어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이 동굴을 본 후에 돌아 나오면서 바로 왼쪽 옆으로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셋길로 들어서면 Coyote Run Trail 과 Wood Creek Trail 을 따라 갈 수 있다. 계곡의 바위들이 선인장과 어우러져 멋진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며 늙은 Oak Tree 의 뿌리가 둥글둥글 땅위에 괴물 같이 솟아 오른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다.

Trail 을 따라 둥글게 돌면 Wood Canyon Trail 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무리하지 않은 산행이 될 수 있으나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Lynx Trail 과 Cholla Trail 을 돌아 다시 Wood Canyon Trail 로 돌아오면 9.5 마일 정도로 약 3-4 시간정도의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West Ridge 산등선까지 올라가면 Laguna Beach 의 시원한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 여름에는 응달이 많지않고 파킹장에서 Trail 까지 가기가 지루하여 덥지 않은 가을에서 봄까지 권장하고 싶은 하이킹 코스이다. 이 외에도 One Way 로 몇 개의 코스가 더 있으므로 박물관 입구에 배치된 지도를 꼭 지참하고 참고하기를 바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 개울물 소리가 마음을 적셔주고 분주한 다람쥐들이 큰 나무등을 오르내리며 산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지루한 줄도 모르고 맑은 하늘과 새소리, 물소리, 동물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노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모든 산들의 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흐르던 개울엔 자갈과 모래로 덮이고 거의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이 계곡만은 물의 양은 줄었을지라도 흐르는 개울물을 볼 수 있어 좋다.

전화번호는 949-923-2200 이다.

등반 높이는 950 피트, 난이도는 2(최고 힘든 정도를 5 로 가정할 때), 추천등급은 여름에는 3, 겨울에는 4(최고 만족도를 5 로 가정할 때)로 결론 짓고 싶다.

다음호에는 Whiting Ranch Wilderness Park 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재정칼럼: 경기침체 및 불안정 시의 올바른 자금관리 방법

최근 주식시장의 흔들림과 경제의 불안 등으로 인해 Variable 상품에 들어가 있는 노후자금에는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장세에서는 특히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 투자전략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철수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각종 노후자금을 위한 IRA, 401k 등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은 세금 등의 문제로 철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동일한 정부제도하의 다른 보험회사의 IRA/401k 상품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물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금융경색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율은 낮으나 모기지 등 대출이 여전히 어려우므로 빌딩이나 집 등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향후전망이 오히려 불투명하다.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아파트 등 소형렌트홈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높아졌지만 앞으로 실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렌트홈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진 집에 대한 수요로 옮겨질 경우 아파트나 렌트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빌딩 등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요소를 감안할 때 안정성과 현금성이 중요한 시니어분들의 투자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후자금을 위한 자금관리로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년 일정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의 투자가 매우 권장할 만하다.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이러한 투자방식으로는 언제든지 원할 경우, 원금을 그대로 되돌려 주면서도 -□즉, surrender charge 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매년 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도 있으며, 투자 기간도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David Kim, Ph. D: 경제학(보험, 금융)) <전화: 949-910-0993>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타웨이 종합보험(재정)서비스 회사(대표: David Kim)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스타웨이 종합보험(재정)서비스 회사: 949-581-7827)

메디케어 선택 요령

해마다 메디케어 어드벤처지(보조)보험에 대한 가입 시기가 닳아 올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건강 보험이 과연 잘 선택한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메디케어 보험회사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소비자들은 막연히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메디케어 어드벤처지(보조)보험은 지역건강보험이라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일정한 지역내의 닥터와 병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지역건강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벤처지는 주로 HMO방식이지만, PPO, PFFS, MSA, SNP, PACE, Cost plan,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들 보험은 주로 보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약간 받으면서도 일정 지역내에서 PPO역할을 하며 입원이나 닥터방문 시 상당액의 copay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의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비록 일정 지역내에서일지라도) PPO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방식의 상품에 대한 선택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을 잘 care해 줄 수 있는 닥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닥터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본인의 처방약을 잘 cover해 주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copay와 혜택이 본인의 질병을 잘 care해 주기에 충분한지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까운 선후배의 조언에 따라 맹목적으로 특정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문제는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

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웃이나 친지의 말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플랜의 차이점과 혜택, 그리고 본인의 건강 및 처방약 등을 스스로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요령이다.

올해, 메디케어 선택 마지막 날인 12월 07일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무엇을 커버하고 있는지, 2012년도에 내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avid Kim, Ph. D. 스타웨이종합(재정)보험 대표 / 전화: 949-581-7827☞

* 스타웨이종합보험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취급하는 모든 메디케어 플랜(PPO, HMO)을 취급 (단, 카이저 제외)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위한 최상의 선택을 위해 항상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플랜의 사용 시 어려움과 불편의 해소를 위해 항상 친절히 도와 드리며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949-581-7827)

올바른 약의 사용법과 보관법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수명의 연장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약의 복용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은 약이라고들 하지만 반대로 약을 알맞게 복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약의 효과를 높이고 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응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혈압약은 보통 한두가지 약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데 약 복용후에는 정상혈압인데 약을 복용하기 전 혈압이 너무 높아진다면 아침 저녁으로 분리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당뇨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보통 복용하는데 저혈당 현상(식은땀, 기운이 빠짐, 심장이 빨리 땀, 손발의 감각이 약해짐,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설탕물이나, 오렌지쥬스, 초콜렛 혹은 glucose정

을 복용해서 혈당을 올려야 한다. 보통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예방약과 녹내장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병의 진전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정상치로 돌아왔을 경우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데 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이전상태로 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약이나 심장약, 콜레스테롤약은 더욱 잘 챙겨 드셔야 한다.

반면, 수면제나, 진통제, 불안으로 인한 신경안정제는 필요 시에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종류의 약들은 습관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필요시에만 복용해야 한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약의 가지 수를 줄이려고 약을 다른 약통에 같이 섞어 넣거나 빈 약통에 다른 약을 넣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이 지나면 혼동이 되어 엉뚱한 약을 복용하게 되므로 절대로 약병을 섞는 것은 금물이다.

또 한가지 권장할 만한 일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조그마한 index 카드에 적어서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시니어분들은 처방이 필요없는 비타민까지 합하면 10여가지 정도 되는데 다 기억하기 힘들고 또한 급히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 목록을 지갑이나 핸드백에 갖고 있으면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약목록에는 약이름, 강도, 빈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찬, 김영진 약학박사

열바인월넷 약국 / 전화: 949-551-4343>

약사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가 상담하는 것입니다. 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약효를 최대화시키고 약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News

한국은 문어의 나라: 독일 언론

한국 재벌의 명암 조명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경제 충격에 취약”

“한국의 재벌은 일종의 도발이다. 경영이론에 따르면 이 공룡들은 오래 전에 사망했어야 한다.”

29일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자매 월간지인 매니저 마가진(Manager Magazine)은 10월호 4개 지면을 털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벌의 성공 신화와 그 명암을 집중 조명했다.

이 잡지는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떠받치는 독일의 산업 구조와 비교하면 한국 재벌이 그리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며 성공해 가는 모습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문어의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만큼 소수 기업집단이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는 선진국은 없다.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온 이들 재벌은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구 경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아닌 매우 강력한 한국기업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애플이 경쟁기업인 삼성을 소송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들의 공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폴크스바겐의 마르틴 빈터코른 최고경영자(CEO)가 “도요타가 아닌 현대가 가장 두려운 경쟁자다. 현대는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과거 재벌은 발명가가 아닌 모방가에 불과했지만,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선도자가 됐다. 스스로 트렌드를 조성한다”는 로널드 빌링거 매킨지 서울사무소장의 평가도 소개했다.

매니저 마가진은 재벌의 성공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4~5%에 이를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한국식 모델의 성공’은 한국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나와 비슷한 수준의 빈국이었지만, 반(反)시장경제 주의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어 기업을 지원했고, 삼성, LG, 포스코, 현대 등이 바닥에서부터 기적을 일궈냈다고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출신이라며 정치계와 대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환경 기술과 의료산업을 예로 들면서 관료들이 결정하면 경영자들이 이를 시행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국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공적이라는

것이 이 잡지의 평가다.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FTD)도 지난 28 일자 ‘우리가 너희를 따라잡았다’ 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한국 대기업이 숨막히는 속도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이 신문 역시 박정희 시대 이후 재벌의 고속 성장사를 자세히 다루면서 한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한국 대기업은 독특한 국가자본주의의 산물로 정꺠정의 공생관계가 한국의 성공비결” 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물산의 아부다비 원전 건설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대기업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에 반도체, 조선, 군사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안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독일 언론은 그러나 “한국 재벌이 지나치게 성공했다” 며 재벌과 이들을 둘러싼 시스템을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이견희 삼성 그룹 회장이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것은 2018 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 었다며 “법은 재벌 총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한국금속노조 관계의 말을 인용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매니저 마가친은 “재벌은 창업자 가문들에 의해 적은 지분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조차도 기업경영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한국인들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미숙하다” 는 위르겐 뵐로 한독상공회의소 소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독일기업들보다 더 자주 ‘실형과 오류’ 방식을 따른다고 평가했다. FTD 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을 독점한다면서 “중소기업들에는 재벌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정도 발전한 수준의 국가라면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유의 해야 한다” 는 로페즈 아이메스 멕시코 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 “몇몇 대기업에 집중하는 한국경제는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국을 일으킨 세가지 힘

인요한 박사(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성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 안내원이 “남조선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을 얘기해

라우!”

그러더라 고요, ‘ 좋다.

‘무엇이든 물어봐라, 다 이야기해주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40분을 강의를 했어요.

“ 첫째,

우리가 잘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다음은 당신 정주영 알지 않느냐?

정주영만 있는 게 아니었고

거기 이병철도 있었다

. 박태준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박정희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혜를 받고 엄청난 공장들을 세우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나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너무 너무 너무 잘 몰랐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중국이 오늘날 잘살게 된 것도 박정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산다.

중국도, 싱가포르 이광요도 박정희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

“ 두 번째,

잘살게 된 까닭은 남쪽에 있는

근로자들 때문이다.

구로공단에서 16시간씩 일했다..

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16시간씩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았다.

뺨을 짚는 아픔을 겪었다.”

“

“ 세 번째,

남조선이 잘사는

이유는 한국의 여성들 때문이다. 근면 절약정신.

당신 한국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건 공감하더라도요. 그래서 “

그 여자들이 근면 절약 정신교육.

이런 걸 우선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되었다.” □

참고 말씀

발행인: 김병희/송운근

한인회보를 위하여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내용이나 위치가 편집 및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기사 수집, 디자인 및 편집 과정은 시간을 요함으로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회보를 위하여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 회보 형태의 Newsletter 양식을 시도한 2011년 4월 이후 겨우 3회째 이므로 실수가 있을 지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물품 교환 및 판매 정보란 신설 □

이번호 부터는 한인회보에 물품교환 및 판매 정보란을 신설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더 쉽고 유익되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이영옥: 949-454-2455

김귀양: 949-951-7896

장지 두기를 팝니다 □

장소는 : EL TORO MEMORIAL PARK LOS ALISOS SECTION 31

25751 Trabuco Rd. Lake Forest

Tel: 949-951-8244 (관리사무소)

Lot 18, Space 2 & 3

가격은 : 3050.00 each for two space 팔기원함 □

일단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949-679-0405 Mr. Ko

광고란

A Statement Of Disclaimer

광고 내용과 LWV KAC와는 무관하며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

식당

Korea House BBQ Restaurant

한식전문 □



□
□

405 FWY

서쪽 0.5 miles 정도 Shopping Mall 에 위치 하고 있음 Michelson/ University Dr.

가까운 Irvine 에 위치하며 연회석 완비

예약은 아래 전화로

Laguna Woods 한인 회원님께 저녁식사 10% 할인

영업시간 매일 11am-10pm Open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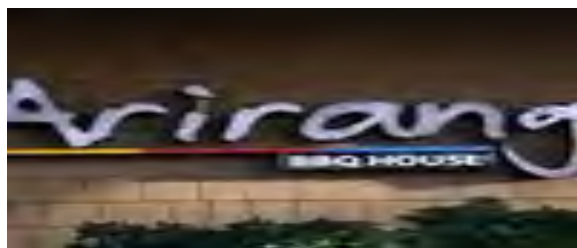
5305 University Drive, CA 92612

Tel: 949-552-9998 Fax: 949-552-5690

특별 계절식이 준비되어 있음.

Arirang BBQ Restaurant

아리랑 한국식당 □



저녁식사에 한하여 LWV 회원님께 10% 할인
15-20 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내 외국인 손님 접대 하기에 좋은 분위기

(949) 559-3605, Fax 949-559-3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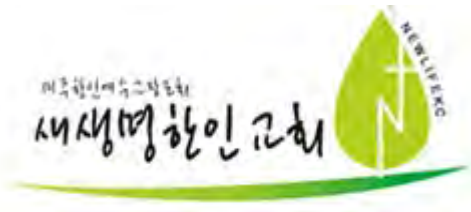
arirangbbq@gmail.com

4595 Barranca Pkwy

Irvine, CA 92604

Barranca 호수 옆에 위치 하고 있음.

교회안내



새생명 한인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Laguna Woods Village 에서

5-10 분 거리에 위치

주일 예배 시간: 1부 9:30 분 2부 11시

새벽 기도회: 5:30AM (화-금) 6:00AM (토)

담임목사: 정철

Tel: 949-341-0022

15 Goddard, Irvine, CA 92618

교회 표어 “ 나를 힘있게 교회를

힘있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통편의 제공도 합니다.

한글 학교 운영

노인실버 아카데미 노인대학

□
□

우림 교회 Urim Church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새벽 기도회: 화-금: 5:30, 토: 6:00

담임 목사: 오종필

Senior Pastor: Jong Pil Oh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4-2724 Fax: 949-454-2724

Cell: 949-322-0646 Home: 949-297-4871

urimchurch.net email

Web: urim@urimchurch.net

교통 운송



자유여행 항공 호텔 해외박람회 크루즈 국내여행

김우진 열바인 지점장

15435 Jeffrey Rd. Suite A131

Irvine, CA 92618

Tel: 949-726-1212 Cell: 213-210-4597

하나투어에서는 지구 어디나 모든 여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Laguna Woods Village 회원님께는 특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LK 공항택시 Taxi Service

승객 보험을 가진 운송전문업

\$100만불 보험가입 주정부 허가 TCP23249-P

LK 공항택시

LK Limo & Tour service

949.454.0681

714.352.1235

공항, 크루즈 픽업 · 일일관광 · 온천 · 카지노

에일 Yeil Construction & Interior

리모델, 건축 전문

President, Hae Chul Lee (이해철)

Tel: 714-323-6397 © Office: 562-902-0190

Fax 562-947-5349

Email: ihcem@hanmail.net

1251 S. Beach Blvd. Unit D,

La Habra, CA 90631

Cabinet Mastery & Remodeling



“ Low Prices For Master’s Quality Work” **캐비닛 전문업**

Gi Kim President

Tel: 800-510-1253 Cell: 714293-0393

Office: 714-533-8986 714-414-9570

Email: Remodeling007@gmail.co

Kitchen Cabinet, Counter Top, Windows, Flooring

1518 N. Endeavour Pl. #C , Anaheim, CA 9280



한국 장의사

믿음, 정직, 성실

Amos Park

12325 E.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Email: kona1190@cox.net

Tel: 562-868-2808

Cell 949-244-6401

고대영 치과 Jose D. Ko, D.D

Family Dentistry

902 E. 1st St.

Santa Ana, CA 92701

Tel: 714-835-5921

Fax: 714-835-4734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한국인의 주머니 사정 잘 아는 치과로 소문,
Laguna Woods village 에서 가까운 거리

늘 피곤하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잠자는 동안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탁월한 자수정 바이오 매트
 1주일 무료체험을 통해 탁월한
 효과를 느껴보십시오.
949-244-6401
 4009 Wilshire Blvd. # 200 www.RICHWAYUSA.net

Realty Offices 부동산 정보



라구나 우즈 Village 부동산 전문
 인 Agent 들.



참고 말씀:

부동산 광고란의 문체 크기에 따른
 해득이 어려운 분은 한인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8 CONSTITUTION MEDICINE
 Dr. **Young Woo Nam** 8체질 전문
 Parkinson Center | Acupuncture Clinic
 한의사 남 영 우
Young Woo Nam L.Ac
 Cell: 213.703.5558
 Tel: 323.731.2444
 Fax: 323.731.2422
 Email: dryoungacu@gmail.com
 4141 W. Pico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9



“송미미 (Mimi M. Song)

부동산 **L.W.V. Property Specialist**

DRE License # 01298749

Tel. & Fax: (949)830-8399

E-mail: mimimyung@comline.co

22691 Lambert, Suite 502

Lake Forest, CA 92630

NEWSTAR
Realty & Inv.
Daniel D Lee | Realtor®

Cell: (714) 887-9111
Office: (714) 832-8888
Fax: (714) 838-5826
Email: danlee@newstarrealty.com
Web: danlee.newstarrealty.com
Address: 4790 Irvine Blvd. #201
Irvine, CA 92620
DRE #: 01884107

MLS
Each Member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Realtor® 임철원

Charles W. Lim

Cell **562.260.7854**

cwlim@comline.com

Bus **949.251.0404**

Fax **949.253.9533**

30 Corporate Park, Ste 207, Irvine, CA 92606



DRE # 01502660




Han K. Chae (채한경)

24361 El Toro Road, Suite 160
Laguna Woods, CA 92637
Cell: 949-636-8989 (H) 949-206-0567
Fax: 949-461-9477 (O) 949-461-9977
Email hankchae@gmail.com
www.lagunawoodscommunity.com

License ID# 01797503
A Division of PCM Realty and Marketing, Inc.





최삼익 Samik Chuey

(562) 301-5485 | Realtor®

Office: 949.251.0404

Fax: 949.253.9533

E-mail: chuey@TeamSpiritRealty.com

30 Corporate Park, Ste 207, Irvine, CA 9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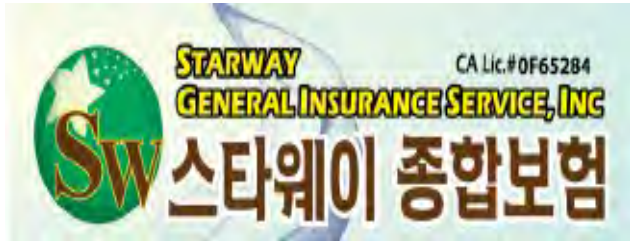

Im Sook Lee
Realtor®

Email: thebesthome4u@yahoo.com
949.241.2747 Direct

License DRE# 01889300




라구나우즈 한인 후원회



라구나우즈 모든 Gate에서 5분 거리

모든 종류의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종목: 메디케어, 생명보험, 연금, Annuity,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Tel: 949-581-7827

주소: 23461 South Pointe Dr. #210

Laguna Hills, CA 92653

문의: David Kim PhD & Sarah Kim

지금 가입 하신 보험과 비교하여 보세요



조셉전메디칼 그룹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피부과, 아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과, 내과, 척추신경, 발(목)

주소: 15775 Laguna Canyon Rd. Irvine, CA 92618

Tel: 949-222-9158

김방선내과

대한민국 / 미국 내과 전문의
20년 경험의 내과 전문의

진료과목: 당뇨병, 고혈압, 각종 성인병의 진단과 치료, 암검사, 위, 장, 직장내시경 검사, 심장 초음파 및 각종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주소: 2500 Alton Pkwy. #108
Irvine, CA 92606

Tel: 949-552-8282

오문목내과비뇨기과

Oh Happy Medial Group Michael Oh, PhD
Board of American Academy Member

보험 없으신 분 위한 \$99 기본검진 스페셜
각종 보험취급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내과, 피부과, 소아과, 부인과, 초음파, 각종 암검사

주소: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Tel: 949-552-8217

월넛약국

정직하고 저렴한 약국

한국인 약사(Pharm. D.) 부부

Laguna Woods Village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주소: 14433 Culver Dr. Irvine, CA 92606

얼바인중앙은행

Tel: 949-551-4343



Trust.



한인회 발전 후원에 동참 합니다
We are glad to support KAC.

O'Connor Mortuary, Laguna Hills

100 년 이상의 역사 Over 100 Years Of History

모든 장례 절차를 한국어 및 영어로 도와 드립니다. 언어의 불편은 없습니다.

Internet 통한 전세계에 동시 장례식 방영 장비! 한국에서 동시 시청 할수 있음.

장례 사전 준비와 방문 문의도 항상 합니다.

Laguna Hills Chapel and Crematory FD1293

25301 Alicia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Tel: 949-581-4300 Fax: 949-581-323

1898 부터 가족운영 하에 이 지역에서 LA 로 부터 San Diego 까지 Serve 하고 있음.

LWV 와는 10 분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함 You can trust us with all your funeral needs.

화장을 포함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할수 있습니다.



DVD 영상녹음 장비 시설 갖추고
필요한 분께 서비서 합니다.

Family Service Director

이영아 (Young Ah Lee)

25301 Alicia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Cell: 949-400-9183 Fax: 949-420-0042

Insurance License # OH14710

youngah@oconnormortuary.co

Price Shopping For Funeral? 장례사 비교 쇼핑 합니까? O.C. Register 에 의한 Orange County, CA 전지역조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장례사 두 곳 중 하나로 선정된 모범 장의사입니다.

Korean American Club
라구나 우즈 한인회
24338 El Toro Rd. Suite-E (PMB) 406
Laguna Woods, CA 92637

Ocean

State License. #944744

Construction & Painting

Exterior & Interior,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Patrick Kim

708 N. Valley St. suite A. Anaheim, CA 92801

Cell 714-875-1441

Fax 714-780-0485 / Email Patrickjgim@gmail.com

708 N. Valley St. Suite A, Anaheim, CA 92801

Laguna Woods Village

주택 보수, 수리 다년

경험 Reference

